

# 원희룡 장관, “기계설비, 제도 정비를 통한 발전 지원”

## - 제8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... 유공자 22명 표창 수여 및 격려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8일(수) 오전 11시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‘제8회 기계설비의 날’ 행사에 참석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.
  -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 내 실내공기 오염을 막아주는 환기설비,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냉난방과 급수설비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건설 분야의 핵심 산업으로, ‘16년부터 기계설비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‘기계설비의 날’을 기념해 왔다.
  - 오늘 행사에는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김학용, 서일준, 박덕흠, 배현진, 임이자 의원,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인호 회장, 정재동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,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, 기계설비 관련 업체 대표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.
- 이날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태철 신원이엔지(주) 대표이사에게 대통령 표창, 박종일 유원엔지니어링(주) 대표이사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되었으며, 송두삼 성균관대학교 교수 등 20명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.
- 원 장관은 “그간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,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”라고 격려하면서,
  - “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, 탄소중립을 위해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따라 정책적 지원과 투자, 제도 정비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라고 밝혔다.
  - 아울러, “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신기술 개발은 지원하는 등 기계설비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2023. 11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